

# 사 램 사 랑

회원통신 제55호(99/7/20)

\*\*\*\*\*

인 권 운 동 사 랑 방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Korea  
(110-522) 서울 종로구 명륜2가 8-29 4층

대표전화: 741-5363, 팩스:741-5364 통신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인권사랑(나우누리)

E-mail; rights@chollian.net Internet Web; <http://www.iworld.net/~rights/>



## 인 권 운 동 사 랑 방

**의미** : 우주 안에서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 이 로고의 제작정신입니다. 바탕색은 오렌지색이며 동그라미는 우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제작과정** : 사랑방이 문을 열 때부터 '간판'이 되었던 '인권운동사랑방'(장기수 오병철 선생님께서 써 주신) 글자체에 이용신 씨가 새롭게 제작한 문양을 결합했습니다. 이용신 씨가 제출한 여러가지 샘플을 가지고 사랑방 식구들은 장장 3개월에 걸쳐 폭넓고 민주적인 토론 끝에 위와 같은 로고가 탄생한 것입니다. 글씨체와 문양의 결합과정은 사람생각 디자인팀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용신 씨는 97년부터 인권영화제의 미술 분야를 맡아 자원활동하고 있으며 로고와 관련된 '사랑방정비사업'도 책임지고 있습니다.

**계획** : 새로운 로고 탄생을 계기로 인권하루소식, 명함, 브로셔, 홈페이지, 인권운동사랑방 각종 출판물이 새단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중에게 친밀하게 다가서는데 로고가 큰 힘을 하리라 여러분과 함께 기대해 봅니다.

\*\*\*\*\*

# 사 / 업 / 보 / 고

(99년 6월 넷째 주부터 7월 셋째 주까지)

\*\*\*\*\*

## 자유·평등의 정신 배울 기회

### 제1회 인권캠프 준비 박차

사랑방이 지금까지 축적된 인권교육에 대한 경험과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처음으로 인권캠프를 갖습니다. 오는 7월 27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되는 대학생 인권캠프를 시작으로 8월 9~10일 어린이 캠프(초등학교 4~6학년), 12~14일 청소년 캠프(중·고등학생)로 진행되게 됩니다. 사랑방 인권교육실이 주관하는 이번 캠프는 △우리들의 권리를 알고 △자유, 평등, 관용, 평화, 연대 등 인권이 추구하는 가치를 체험하고 △생활속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재미있는 놀이와 연극을 통해 배우는 과정을 통해 '우리 모두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귀중한 가치를 찾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캠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권교육실은 매년 여름 캠프를 지속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운영, 자문위원 여러분들의 자녀도 이번 기회에 자연 속에서 인권을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7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5일 양지마을 민사소송 제기

지난 3월부터 준비했던 양지마을 퇴소자들의 민사소송이 결실을 보았습니다. 지난 15일 우선 국가의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의 부재로 인한 인권침해 등에 대한 배상을 청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22명의 양지마을 퇴소자들이 참가하였고, 이덕우 변호사께서 소장 접수까지 수고해 주셨습니다.

사랑방은 오는 30일 민사소송에 참가한 양지마을 피해자들을 소집하여 민사소송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회를 갖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덕우 변호사께서 참석하여 설명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또, 이외에도 2차 민사소송과 추가 형사소송도 다시 준비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 인권협 발전적인 해소 합의

지난 13일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인권협 집행위원회에서 인권협의 진로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지난 6월의 인권협 집행위원회에서 사랑방은 △인권운동의 연대성의 확대와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점 △국가인권기구의 민간측 카운터파트너의 역할을 할 강력한 연대기구 형성의 필요 △인권협 자체의 논의력과 집행력의 취약으로 인한 역동적인 인권현실에 대처하기 힘든 점 등을 들어 인권협의 발전적 해소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협 집행위원회에서는 오는 8월 하순경 각 단체의 의견과 그간 인권협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을 모아서 인권협의 진로에 대한 워크숍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워크숍 이후 대표자회의를 갖고 인권협의 발전적 해소와 새로운 연대기구 구성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표자회의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현재의 간사단체(천주교인권위)와 상임대표 단체(민가협)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자료 6면에).

또, 집행위원회에서는 에바다 사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

권협이 에바다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점 또한 현실이므로 사랑방이 에바다 문제에 대해 관심있는 단체들을 모아서 여론화 작업 및 법적 대응 등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스리랑카에서 23일부터 열리는 아태 지역 국가인권기구 협의체 모임과 아태지역 인권촉진모임(F/T) 정기회의에 조시현 교수를 참석시키기로 하고 이에 대한 재정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인권협 명의로 고발한 경찰관 총기남용과 관련하여서는 민변에서 맡아서 재정신청에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 에바다 농성 적극 지원 모색

오는 8월 18일로 평택 에바다 농아원생들의 비리재단 퇴진을 위한 농성이 1천일이 됩니다. 3년 가까운 세월동안 에바다 문제에 대해 에바다 농아원생들과 학부모, 선생님들이 힘든 과정에서도 농성을 유지해왔고, 평택 지역의 단체들을 중심으로 공대위를 구성해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재단측이 에바다농아원에 개입하고 있음으로 해서 에바다원생들이 주장하는 근본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이성재 의원 등 4명의 관선이사에 대해서 에바다 재단측이 이사자격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내서 법원에서 이를 받아 들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9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이 가처분금지가 풀렸으므로 이성재 의원등이 이사로 들어가 활동할 수 있게 되어 희망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랑방은 우선 민변, 참여연대, 한국장애인연맹(D.P.I.), 공대위와 사전 논의를 통해 서울을 중심으로 에바다 사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논의하고, 농성 1천일에 맞춘 사업들을 전개할 연대들을 갖기로

했습니다.

### 서대표 재판, 8.13 <레드 헌트> 검증

서대표의 재판이 선고를 앞두고 있다가 재판부가 변론 재개결정을 내려 다시 심리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일 9시 30분 서울지법 서부지원 407호 법정에서 형사 단독 3부(판사 오석준)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의 직접적인 문제가 되었던 제주 4.3 다큐멘터리 <레드헌트>에 대한 검증을 오는 8월 오후 4시 서부지원 10층 시청각실에서 검증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대표의 재판은 검증 과정을 거쳐서 감정서를 제출토록 하는 절차를 밟은 뒤 선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서대표의 1심 선고재판은 빨라야 오는 9월이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서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사랑방은 국내외에 이 상황을 알렸고, 이에 대해 해외와 국내외 단체와 인사들이 많은 관심을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서대표의 선고공판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운영, 자문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연수생 교육 프로그램 마련

사무국에서는 토론을 통해서 연수프로그램을 재정비했습니다. 연수 교육은 사랑방의 성원이 되는 주요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연수생으로서 교육을 받기 보다는 일이 급함에 따라 곧장 업무에 배치되는 상황이 올해 초부터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연수생이 충분히 업무를 파악하고, 기본적인 인권의론과 실무지식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8월부터는 연수생을 곧바로 업무에 투입시키기보다는 업무 보조

자로 위치지우고, 약 보름에서 한달간 집중 교육을 시키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과제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연수교육은 인권에 대한 기본 이론, 사랑방과 한국 인권운동사, 인권상황 등에 대한 학습과 실무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연수생의 교육은 인권교육실장이 맡게 됩니다.

### 사회권 보고서 막바지 작업

사회권위원회가 오는 9월 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막바지 원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담당자들이 속속 원고들을 제출하고 있으며, 이를 갖고 매주 진지한 토론을 전개하면서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회권 보고서 작업은 22일까지 원고 초안을 제출하고, 이를 갖고 전체 보고서 기획안과 대비하여 검토하는 MT를 24,5일 1박2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8월초까지 원고 수정작업을 거쳐서 감수진에게 감수를 받기고, 다시 수정작업을 거쳐 8월말까지는 출판사에 원고를 완성된 형태로 넘길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말로 예정된 보고서 출판과 때를 같이 해 사회권 운동에 관한 공개 심포지엄을 갖고, 우리 사회에서 사회권운동의 방향에 대해 토론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 워낙 사회권에 대한 연구와 논의, 실천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각 분야별 정리작업이 무척 힘든 상황입니다.

한편, 사회권위원회는 아셈 민간단체포럼 준비위원회의 간사단체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아셈에 대한 인권분과의 전략, 의제설정, 해외단체들과의 연대를 모색하기 위한 분과 회의를 오는 28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인권분과에는 서울에서 민가협, 여성의전화연합 등이, 지방에서는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부산인권센터, 광주인권지기, 다산인권상담

소 등 16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아셈준비위원회는 전체적인 포럼 운영에 대한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분과간사단체 회의를 계속 갖고 있으며, 8월초 대표자회의를 통해 간사단체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을 정리하여 아셈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들을 제출하게 됩니다.

### 자유권, 국보법·행형법 중심사업으로

자유권위원회는 7월중으로 가지려던 행형법 개정안에 대한 민간단체 토론회를 9월초로 연기했습니다. 정치상황이 유동적이라서 행형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본격 논의가 되기 어렵다는 점과 민간측의 안 마련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이슈로 제기될 민영교도소와 관련한 입장이 정리되지 못하는 점도 작용했습니다.

한편,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의가 지난 6월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다시 제기됨에 따라 대표는 다른 사업보다는 국가보안법 사업에 힘을 싣기로 하고 국가보안법 신문 제작과 다른 단체들과의 연대를 위한 기구 구성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유권위원회는 민변에서 작성한 자유권 민간단체 반박보고서를 검토하는 회의를 두 차례 갖기도 했습니다.

### 인권교육실, 가장 바쁜 여름

인권교육실은 두 권의 책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Stand up for Human Rights』이란 책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세계의 인권상황과 인권교육에 대한 내용을 그림을 곁들여 만든 예쁜 책입니다. 또 하나는 『21세기 인권교육』이란 책으로 꽤 두터운 분량의 책입니다. 이 책은 최근의 논의까지 포함하여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내

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책은 12월 세계 인권선언일에 맞춰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뒤의 책 번역료로 도서출판 사람생각에서 매월 1백만원씩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또, 인권교육실은 지난 7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소규모학교통폐합 반대 집회에 참가하는 등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반대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실은 한편으로는 인권캠프를 추진하면서 이 이들을 진행하는 터라 꽤나 바쁜 나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 엄주현 인권자료실장이 임신하였습니다. 그러나, 태아의 착상이 불안하여 3개월간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두번째주부터 휴직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기원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자료실 박스 교체 작업이 실습생들의 도움을 받아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엄실장의 휴직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인터넷 개선사업이나 자료실 인터넷 연동사업 등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권태평 어머니께서 7월부터 자원활동을 다시 나오시게 되어 한시름 덜게 되었습니다.

□ 한국타이어 노조민주화투쟁과 관련하여 96년 12월부터 수배생활을 해왔던 박응용씨가 지난 13일 검찰에 출두하여 불구속으로 풀려났습니다. 이로써 3년 7개월간의 고통스런 수배생활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랑방은 한국타이어의 인권탄압을 줄곧 알려왔습니다. 이번 수배 해제에 대해서도 검찰과 여당 인권위원회에 박씨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의 수배 해제를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 인권영화제를 오는 10월부터 1주일간 열기로 하고, 작품 선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가장 문제는 여전히 장소일 것으로 보입니다. 동국대 측에서는 완곡하게 장소 대여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강대, 서울대의대, 연세대 등 가능한 모든 곳을 찢어서 영화제 장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사무국 사람들이 1주일씩의 휴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교육실은 인권캠프 때문에 인권하루소식은 기자 인력 배치 문제로 제대로 휴가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오는 7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휴가를 포함한 재택근무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 한국정치연구소의 손혁재 박사께서 99년판 대법전 한 질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이 법전에는 CD 타이틀까지 곁들여 있어서 사용하기에 매우 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박사님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 누구 선풍기 좀 달아 주세요.

마치 극기훈련을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을 점통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버립니다. 이번 여름에는 재정보고에서 보듯이 재정상황이 말이 아니라 감히 선풍기 하나 살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전체 사무실에 조그만 선풍기 3대가 고작입니다. 자료실이나 회의실은 아예 선풍기 바람조차 구경할 수 없습니다.

염치 없지만, 누구 선풍기 좀 기증해 주실 분 없습니까, 네?

## <자료>

# 인권협회의 발전적 해소를 위한 토론 제안문

1999. 7. 13. 인권운동사랑방

### 1. 인권협 역할에 대한 평가

- 인권 운동 부문의 유일한 상설 네트워크의 위상에 맞는 논의력 및 집행력을 갖추지 못함; 이로써 인권협은 국내외의 인권 사안에 대해 거의 대처하지 못함.
- 인권 정보 수집과 배급, 인권교육을 위한 어떤 실천 계획도 갖지 못함; 정보 공유조차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
- 국제적인 연대 창구로서 KOHRNET만 남은 상태임. 그나마도 일부 사람에 의해 유지되는 측면이 강하고,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국제연대 활동은 하지 못함.

### 2. 발전적 해소의 필연성

- 인권상황의 변화;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인권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자유권에서 사회권까지 다양한 인권사안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인권운동의 연대성의 확대와 강화를 요구하게 됨.
- 국가인권기구의 탄생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국가인권기구의 counter partner로서의 인권연대기구가 요청됨. 인권협은 이런 역할을 하기에는 턱없이 왜소함.
- 인권협 자체의 취약성; 가입 단체들의 취약성과 제한성, 인권협 운영 및 집행력에서의 취약성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권상황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가 불가능함. 이로써 새로운 인권연대기구의 탄생에 인권협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인권협 자체의 제한성과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한계가 노정된 가운데 새로운 인권연대기구의 구성이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상황임.

### 3. 발전적 해소의 방향

- 1차적 인권단체를 넘는 2차적 인권단체까지 포괄하는 광범한 연대의 형성; 예) 민주노총, 여성연합 등과 함께 하는 인권연대기구
- 의사결정구조와 집행력의 강화; 느슨한 네트워크를 넘자
- 명칭의 계승, 특히 영문 명칭은 새로운 인권연대기구로 계승시킴. 새로운 연대기구는 인권협의 역사적 사명과 역할에 대해 그 의의를 인정.
- 새로운 인권연대기구의 임무; △국가인권위원회를 견제, 건인 △국내 주요 현안에 대한공동 대응 △주요 국제인권이슈에 대한 책임있는 연대 △정보의 공유와 소속 단체, 활동가, 회원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교육 △인권 이슈 및 정책 개발 등.

### 4. 발전적 해소의 과정

- 집행위원회에서의 토론--> 대표자회의의 결정--> 해소와 새로운 연대체 준비를 위한 기구 구성--> 새로운 연대체 구성(인권협의 해소)
- 대표자회의를 긴급히 소집하고, 대표자회의 때까지 현 간사단체와 상임대표 단체 유지.
-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등에 정식으로 새로운 연대기구의 구성 등을 정식 제안하여 공론화시킴.

-끝-

제1회 인권운동사랑방 어린이/청소년/대학생 인권캠프

# "인권과 친구하기"

## ● 어린이 인권캠프

- 언제 : 8월 9~10일(1박2일)                       어디서 : 두밀리수련원(경기도 가평)  
 참가대상 : 초등학교 4~6학년(선착순 30명)       참가비 : 3만5천원

8/9(월)	8/10(화)
▷모두가 소중한 사람- 나와 너의 발견 ▷어깨동무가 필요해요!-이야기 꾸미기/협력게임 ▷우리의 인권을 알아! 어린이 권리에 관한 애니메이션 시청 ▷캠프파이어 - 우리가 꿈꾸는 세상	▷숲속 나들이! ▷우리가 만드는 인권선언 - 세계 어린이와 친구되기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 바디페인팅/ 깃발 만들기

## ● 청소년 인권캠프

- 언제 : 8월 12~14일(2박3일)                       어디서 : 두밀리수련원(경기도 가평)  
 참가대상 : 중·고등학교(선착순 30명)       참가비 : 4만5천원

8/12(목)	8/13(금)	8/14(토)
▷만남의 마당 ▷모두가 소중한 사람 - 나와 너의 발견 ▷어깨동무가 필요해요! - 이야기꾸미기/협력게임 ▷인권의 역사를 찾아서! - 자유와 인권을 위한 삶	▷갈등극 릴레이 - 생활 속의 청소년 인권문제 발굴 ▷우리의 인권을 알아! - 청소년권리에 관한 애니메이션 시청 ▷물놀이 ▷인권여행 - 세계의 청소년과 친구되기 ▷가상 청소년 인권회담 ▷캠프파이어 - 우리가 꿈꾸는 세상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 광화문 '새천년 청소년 문화축제' 참가/ 세계 청소년을 위한 인권캠페인 진행 ▷종료식

## ● 대학생 인권캠프

- 언제 : 7월 27~29일(2박3일)                       어디서 : 서울대학교  
 참가대상 : 대학생(선착순 40명)                       참가비 : 2만원

27일(화)	28일(수)	29일(목)
▷ 입학식 및 만남의 마당 ▷ 인권이란 무엇인가 - '인권의 나무' 만들기 ▷ 세계인권사(人權史) 기행 - 자유와 인권 위한 삶(역할극) ▷ 국제인권기준과 인권보장제도 ▷ 문화마당 - 신뢰와 자유의 댄스 - 갈등극 릴레이	▷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찾아서 - 내가 쓰는 인권선언 ▷ 의제도출을 위한 이론적 기초 - 국가권력/ 자본/ 세계체제 속에서의 인권 ▷ 기존 국제인권단체들의 전략과 모델 분석 ▷ 대학생 인권운동의 전략과 모델 개발 - 나는 무엇에 불복종할 것인가 ▷ 문화마당 - 인권가요제/ 2030년 보고싶은 인권뉴스/ 협력게임/ 믿음의 원	▷ 종료식 ▷ 나도 인권지킴이 (인권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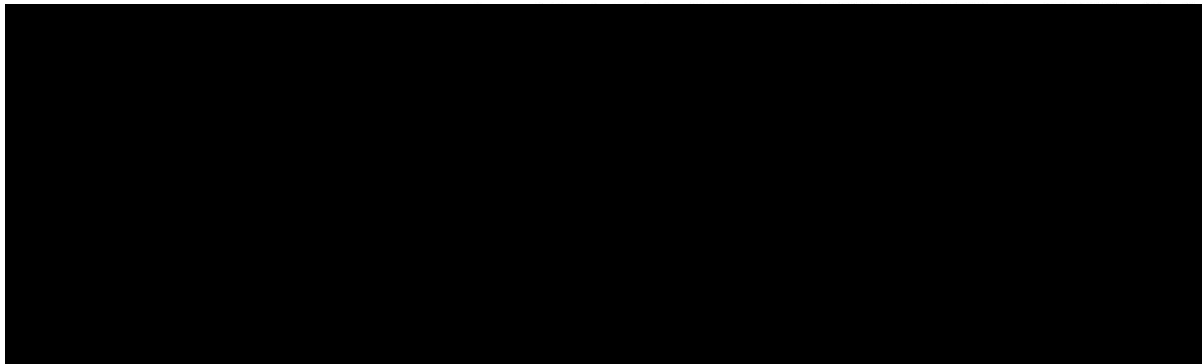
- 등록마감 : - 어린이/청소년캠프 : 8월 5일까지 접수    - 대학생캠프 : 7월 24일까지 접수  
 ■ 입금계좌 : 한빛은행 112-08-100870(예금주 배경내)  
 ■ 참가신청 및 문의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담당 배경내 02-741-5363)

**99년 6월 재정보고**  
(99년 6월 16일 - 7월 15일)

전기이월: - 12,949,251원

수 입		지 출	
회비	2,697,900	공과금	150,210
후원금	425,370	복사·제본비	37,700
사업수익	5,432,900	사무기기 수리·유지비	354,000
인권하루소식	4,205,090	사무비품비	462,500
구독료	4,011,690	식비	449,310
인권시평 배급	143,400	연대사업비	40,000
합본호 판매	50,000	우편·발송비	622,930
인권교육실	488,500	인쇄비(봉투,명암)	236,000
교육활동	430,000	자료구입비(간행물 포함)	52,900
인권교육길잡이 판매	58,500	잡비	147,300
인권정보자료실	537,310	전화·통신비	1,256,370
자료복사	503,310	집세	1,400,000
국가보안법보고서 판매	32,000	출장비	75,700
불심검문 자료집 판매	2,000	한겨레신문광고비	165,000
강연	200,000	(서대표 선고공판 안내)	
기타	8,316	활동비	4,320,000
		기타	121,700
<b>수입총액:</b>	<b>8,564,486원</b>	<b>지출총액:</b>	<b>9,891,620원</b>
<b>최종결산:</b>	<b>- 14,276,385원</b>		

<6월 운영·자문위원 회비> (가나다 순)



<구좌 안내>



지 로: 7618848

예금주: 서준식